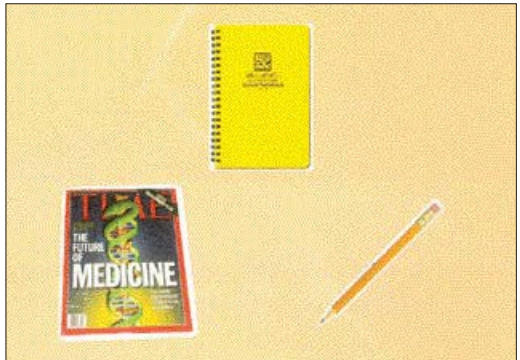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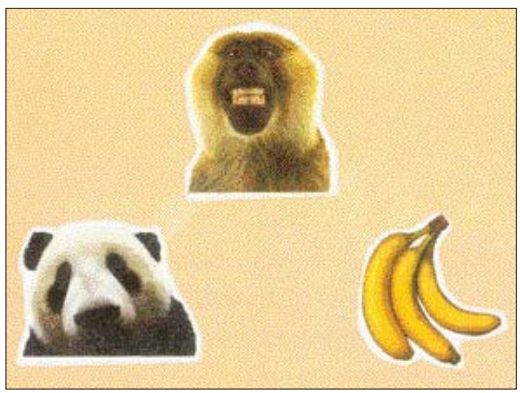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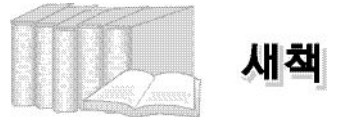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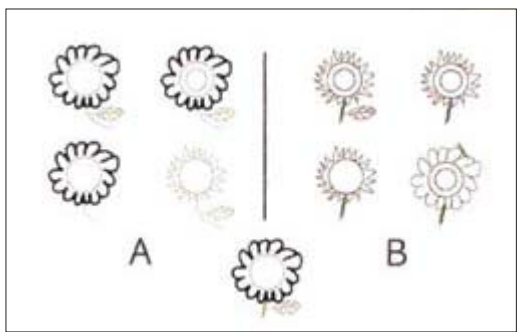
북스

Books

동양인·서양인 '생각의 구조'부터 다르다



원숭이, 팬더, 바나나와 잡지, 공책, 연필을 두개씩 묶는 과정에서 동서양인의 차이가 드러난다.



기본 꽃그림이 어느 그룹과 유사한지라는 질문에 전체적인 인상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동양인들은 A그룹을, 규칙성을 통해 유사성을 판단하는 서양인들은 B그룹을 지목했다.

EBS 다큐멘터리 '동과서'

김명진 지음



자, 여기 원숭이, 팬더, 바나나가 있다. 이중 두 가지를 묶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잡지와 공책, 연필이 세 가지 중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한 묶음으로 하겠는가.

또 하나의 질문, 갑자기 풍선이 위로 확 떠오르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풍선에 어떤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일까 '풍선의 바람이 빠져서'일까. 이 질문에 대해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소 다른 답을 내놓았다.

'동과서'는 지난 4월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동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책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작가 김명진씨는 동양인과 서양인은 왜 사고방식이 다를까 질문하고 그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문화적, 심리적 원인을 추적한다.

제작진은 리처드 니스벳(미시간대 심리학) 교수 등 국내외 심리학 전문가 20여명과 심층 인터뷰와 동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리 실험,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동서양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동양인은 원숭이와 바나나, 공책과 연필을 한 묶음으로 묶었다. 반면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팬더, 공책과 잡지를 한 묶음으로 묶었다. 동양인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처럼 사물간의 '관계'를 주목한 반면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팬더는 같은 포유류', '잡지와 공책은 둘 다 책 종류'라는 '분류'에 무게중심을 뒀다.

책은 이 사례를 통해 동사를 중심으로 사물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동양인과 명사를 중심으로 사물을 독립적으로 분류하는 서양인의 사고 방식 차이를 소

고하고 있다. 풍선과 관련된 질문의 경우 서양인은 '풍선의 바람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어떤 현상의 원인이 사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동양인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 사물을 둘러싼 '상황'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바람이 불었다'고 답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역시 동서양인들의 사고방식 차이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파란색 펜 4자루와 흰색 펜 1자루를 보여주고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고르게 하면, 동양인은 파란색 펜을, 서양인은 흰색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색을 바꿔서 선택하도록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양인이 색깔과 관계 없이 여러 개 제시된 펜을 선택한 이유는 동양의 경우 오래전부터 개인이 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깊기 때문이었다. 반면 독립적인 삶을 지향하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서양인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버지니아 공대 조소회 살인 사건에 대해 한국인들이 촛불 집회를 열며 사과하자 당시 한 신문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한 개인의 잘못이니 더 이상 사과하지 말아달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하지만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강한 동양에서는 그리 이상한 풍경은 아니었다.

책은 또 다양한 실험과 설문 등을 통해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과 상황을 중시하고 '상대중심적인' 동양인의 사고와 텍스트 의미 자체에 집중하고 '자기중심적인' 서양인의 사고에 대해 소개하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사고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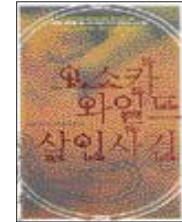
TV프로그램을 책으로 옮긴 탓에 깊이 있는 논의가 소개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 다큐 제작의 밑바탕이 됐던 리처드 니스벳 교수의 '생각의 지도'를 읽어보는 게 좋다. 2004년 번역 출간된 '생각의 지도'는 인문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된 우수 흥미로운 책이다.

<예담> 1만1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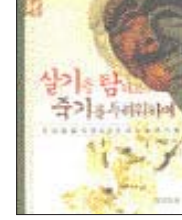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1, 2)=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작가 로렌 와이즈 버거의 신작. 뉴욕 최고의 홍보회사인 '캘리 & 컴퍼니'를 배경으로 신입 직원 베티가 영국 귀족 출신의 능력 있는 변호사 필립과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등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문학동네> 각권 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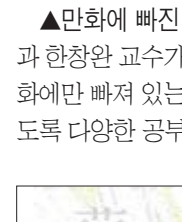
▲오스카 와일드 살인사건=실제 친구 사이였던 '행복한 왕자'의 오스카 와일드와 홀츠 시리즈의 코난 도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리 픽션 소설. 영국 작가 가일스 브랜드레스가 펴낸 '오스카 와일드' 시리즈 중 한편으로 1989년 영국에 나타난 살인마를 쫓는 와일드와 도일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 <서울문화사> 1만원



▲살기 탐고 죽기를 두려워 하며=역사 저술가 윤용철이 '조선왕조실록'의 '졸기(卒記)'한 인물이 사망했을 때 필립이, 업적, 학문의 정도 등을 밝힌 기록물)를 바탕으로 엮은 책. 황희, 성삼문, 신숙주, 허균, 정도전, 정철 등 23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달빛북방> 1만2천500원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우아한 생존 메뉴얼=숫자에 약하고 수리적 사고에 익숙하지 못한 이른바 수맹(數盲)들을 위한 숫자 감각 업그레이드 매뉴얼이다. 미국 토플데 교수인 존 앨런 파울로스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숫자에 강해지는 방법을 소개했다. <동아시아>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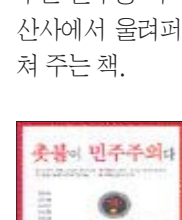
▲만화에 빠진 아이 만화책 가르쳐라=세종대 만화 에메이션학과 한창완 교수가 들려주는 '만화 세대' 아이의 독서·논술 교과서. 만화에만 빠져 있는 아이가 만화를 통해 표현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공부법을 제시한다. <웅진리빙하우스> 1만원



▲소도=오일문학상 수상 작가인 고창근의 소설집. 작가의 고향인 경북이 무대이며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매 맞는 아내 등 소외된 계층과 장애를 앓고 있는 농촌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뿌리출판사> 1만원



▲디자인이 브랜드와 만나다=베네룩, 리바이스, 나이키, 애플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제품과 디자인의 역사를 소개한 책. 불경기에 오도리 주가와 순익이 올라가는 3M사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시공사> 1만2천원



▲천수경=삼각산 화계사 보화루에 머물고 있는 묘법 스님이 전해주는 천수경 이야기. 천수경을 알기 쉽게 소개해 무더운 여름, 깊은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처럼 현대인의 욕심과 상념을 깨워 주는 책. <현암사> 2만원



▲촛불이 민주주의다=국내 대표적 진보화학자 단체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참여사회연구소'의 촛불 집회 토론회를 담은 보고서. 2008년 봄부터 한반도에 번지기 시작한 촛불 집회를 본격적으로 해부한 최초의 책. <해피스토리> 1만1천원

셰익스피어 전집 1차분 5권 나왔다

영국인 식민지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했던 대문호 셰익스피어. 인류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다.

시인이자 소설가, 무대 연출·기획자이며 번역가로 활동중인 김경환씨가 번역을 맡은 셰익스피어 전집이 아침이슬 출판사에서 나온다.

셰익스피어의 인생관과 예술관이 담긴 '헨리'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 등 4대 비극과 만년작 '폭풍우' 등 1차분 다섯 권이 먼저 출간됐다.

김씨는 셰익스피어의 완성판으로 평가받는 '노튼 셰익스피어'를 원본으로 삼아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일상어를 적극 살려 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아침이슬> 각 권 1만원 /오공특기자 kroh@kwangju.co.kr

한국미술의 미 안휘준·이광표 공저

로딩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 미술 모방?

조각가 로딩(1840~1917년)의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의 국보 금동반가사유상을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한국만을 생각하는 문화유물주의가 아니다. 우리 미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 번쯤 풀어볼 수 있는 추측이다. 국내 미술사학계의 거장이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인 안휘준씨의 '한국 미술의 미'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미술의 흐름을 짚어 낸 책이다. 저자가 자신의 제자와 문답형식으로 나온 미술사 대담을 정리했다. 시대별·나라별로 한국 미술의 특징과 그 변천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작을 엄선해 집중 조명했다. 한국 미술은 있는 그대로를 묘사했던 서양 자연주

의와는 달리 인공적인 것을 최소화시켜 자연과 순응하는 아름다움을 창조했다. 바로 고구려 고분벽화, 백제 금동대향로, 신라 금관에 배어 있는 아름다움이 그것이다. 발해 정효공주 묘의 벽화, 허백련의 '산수' 등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설득력 있게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를 통해 곡선과 비례의 미를, 청동기시대의 거울을 예로 들어 고차원적 기하학과 추상미를 짚어낸다. 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겹재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경산수화는 중국 소·원의 화풍을 모방해 산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국내의 산세를 관찰한 뒤 그리는 것으로 흔히 규정한다. 하지만 고려시대 이전에도 한국적 화풍이 분명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식민주의 학자

들에 의해 잘못 심어진 편견과 오해이다. 이 때문에 정선이 활동했던 18세기를 진경시대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미술의 위대함은 일본 미술과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수많은 작품이 일본 미술에 영향을 줬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1883~1969년)가 세계 제1의 문화제로 평가했던 일본의 국보 1호인 고희지 목조 미륵반가사유상도 실은 한국의 금동반가사유상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유럽에 일본 미술이 한창 소개되던 시기에 로딩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기에 어느 정도 한국 미술의 간접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한국미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기를 원한다면 권할만하다. <휴출판> 2만원 /오공특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with various service provider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광주일보 구독신청·배달·전단배포안내' (Kwangju Ilbo Subscription, Delivery, and Leaflet Distribution Guide) with a detailed table of subscription rates and contact info.